

 인천광역시	<h1>보도자료</h1>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5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수질보전과장 이현주 ☎440-5501 • 담당자 양해원 ☎440-550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여름철 맞아 약수터 수질 안전성 강화 나서
- 약수터 병원성미생물 집중검사로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노력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생활 휴식 공간인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해 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 집중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원은 인천지역 6개 군·구의 약수터 30개소를 매월 1회 검사하고 있으며, 4월과 7월에는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3종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먹는물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한 검사에서는 수원 고갈 또는 시설 정비 중인 지점 4곳을 제외한 26개 약수터 가운데 1개소만 부적합했으며, 25개 약수터는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해 오염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인 여시니아균은 모든 약수터에서 불검출됐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실시된 약수터 수질검사는 176건으로 부적합은 9건(5.1%)이었으며, 모두 미생물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은 즉시 약수터 이용이 중지되고, 해당 군·구청에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용이 재개된다.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air.incheon.go.kr>) 자료실에 매월 공개되며, 시민들을 위해 누구나 알기 쉬운 건강한 약수터 이용법 등 다양한 약수터에 관한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절기에는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고, 장마로 인해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약수터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며, “반드시 안내표지판을 확인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음용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참고자료> ≪ 약수터 이용 안내 ≫

◆ 약수를 안전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약수터에서)

- 찾아가시는 약수터 주변 청결은 내가 먼저 실천해주세요. 약수터에서의 기본 환경 예절이 깨끗한 약수를 드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 비가 내린 뒤 주변 동물들의 배설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 비가 많이 온 후 **2~3일간**은 약수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온 후 약수가 증가하면 음용을 자제해주세요. 건수(비온 뒤 일시적으로 솟아나는 물)의 유입으로 세균, 탁도 등의 일시적 부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약수터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을 꼭 확인**하여,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 시에는 음용을 중지하시고 검사결과 적합 판정 후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약수를 안전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가정에서)

- 약수를 채수하시는 용기는 꼭 집에서 세척하여 주세요. 약수터에서 약수물로 약수통을 세척하는 일은 삼가 주세요. 청결하지 못할 경우 세균에 오염된 약수를 마시게 됩니다.
- 약수를 1주일 분량(약 20리터 1통) 정도만 채수해주세요. 실온에서 오래 보관할수록 미생물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 채수하신 약수는 **가능한 1주일 이내에 마시고**, 여름철에는 수인성 식중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끓여서 식힌 후 냉장보관하여 음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때 냉장보관 용기는 우리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물 맛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